

## 호스피스 의미 새롭게 생각하며

김수지 \_ 한국호스피스협회 회장

**한** 국호스피스협회는 말기 질환으로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잔여수명이 6개월 전후로 예측되는 환자와 그 가족을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전인적으로 보살피고 돌보는 호스피스활동을 저변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사랑정신을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91년에 발족되었습니다.

14년이라는 세월동안 협회에 소속한 전 기관들은 호스피스를 통해 생의 마지막 지점에서 절망하며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정과 교회, 학교, 직장, 그리고 사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고 돌보며 삶의 의미와 생명존중의 가치관을 실천해 나가는 진정한 보살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소원하며 헌신하여 왔습니다. 또한 호스피스의 생명사랑운동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급격히 나타나고 있는 가정해체, 가정 공동화(空洞化)현상, 생명경시 풍조, 노인과 병약자 홀대, 임종자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 유기 등 각양의 뒤틀리고 잘못된 가치관과 사회적 경향에 대항하여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고 새로운 사랑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는 생명사랑' 이라고 한 우리의 다짐은 연약한 상태에서 흔들거리는 생명을 사랑함으로써 여생을 활기차게 살도록 돕는 생명 살리기 운동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호스피스야말로 죽음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함으로써 꺼져가는 생명을, 받아드리고 제대로 잘 보존하며 살 수 있도록 소생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말기 암으로 고생하고 있는 많은 분들 중에 이미 죽은 사람

처럼 살고 있는 예가 허다하지만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고 삶의 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사랑실천이 크고 위대합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출산처럼 세상을 떠나는 삶의 한 과정으로써 이 땅의 제한된 생명에서 저 하늘의 영원한 생명으로 비상하는 극적인 승리를 바라보는 기쁨이기도 하면서 때로는 소망 없이 꺼져가는 생명의 잔해 위에 드리운 사망의 음침한 그림자를 바라보는 통痛的 심정입니다.

호스피스의 생명사랑 운동으로 인해 우리 모두는 사랑 안에서 사랑을 위해 창조되었으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생명을 사랑함과 동시에 생명의 주체인 하나님, 그리고 서로를 이웃으로 사랑하도록 지음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봉사자로부터 도움을 받은 가족과 친지들이 호스피스 봉사자로 자원하여 활동하는 것은 호스피스활동이 생명사랑 운동임을 확실히 알려 주는 좋은 본보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2005년은 참으로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극한 고통과 두려움의 상황에 처한 절망하는 이들, 그리고 아무 것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들의 삶과 죽음의 현장에서 인간 존중과 생명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호스피스 봉사자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대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 받은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